방탄소년단, '꿈의 무대' 웸블리에 오른다

방탄소년단(BTS)이 그룹 퀸의 프레디 머큐리가 '보헤미안 랩소디' 를 열창했던 꿈의 무대 웸블리 스타디움에 오른다. 올해 새로 시작하는 월드투어의 일환으로, 한국 가수가 웸블리 무대에 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BTS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20일, 월드투어 '러브 유어셀프 스피크 유어셀프(LOVE YOURSELF SPEAK YOURSELF)' 개최 소식을 알렸다. 이번 투어는 지난해 8월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을 시작으로 진행 중인 '러브 유어셀프' 투어의 연장선이다. 모두 수용 관객 5만 명을 넘는 초대형 스타디움 콘서트다.

공개된 일정에 따르면, BTS는 5월부터 총 8개 도시 10회 공연에 나선다. 5월 4일 미국 LA 로즈볼 스타디움을 시작으로, 시카고 솔저 필드(5월 11일), 뉴저지 메트라이프 스타디움(5월 18일), 브라질 상파울루 알리안츠 파르크(5월 25일), 영국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6월 1일), 프랑스 파리 스타드 드 프랑스(6월 7일), 일본 오사카 얀마 스타디움 나가이(7월 6~7일), 시즈오카 스타디움 에코파(7월 13~14일)에서 콘서트를 연다.

이 중 웸블리 스타디움은 스포츠와 대중문화의 상징적 장소로 잘 알려져 있다. 잉글랜드 축구 국가대표팀의 홈구장이고, 2012년 런던올림픽 경기장으로 사용됐다. 1985년 프레디 머큐리가 출연한 '라이브 에이드' 가 열린 곳으로도 유명하다. 비틀즈, 마이클 잭슨, 엘튼 존, 아바, 조지 마이클, 빌리 조엘, 롤링 스톤스, 메탈리카, 비욘세, 에드 시런 등 내로라하는 톱스타들이 이곳에서 공연했다. 수용 관객은 9만 명이다.

'천만 요정' 오달수, 새 출발 준비

배우 오달수(사진)가 톱스타들이 대거 소속돼 있는 한 업체와 접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의 활동 재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오달수는 지난해 2월 연예계를 뒤덮은 미투 운동 당시 성추문 파문에 연루되며 활동을 전면 중단했다. 당시 '천만 요정' 이라는 애칭 아래 충무로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던 터라 영화계에는 그의 하차에 따른 적잖은 파장이 일었다.

촬영을 완료했거나 촬영 중이던 작품들은 tvN 드라마 '나의 아저씨' 를 비롯해 영화 '신과함께-인과 연' , '컨트롤' , '니 부모의 얼굴이 보고 있다' , '이웃사촌' 까지 총 다섯 편. 이 중 '나의 아저씨' 와 '신과함께-인과 연' 은 다른 배우로 대체해 방송 및 개봉을 완료했다.

하지만 오달수가 주연으로 나선 '컨트롤' , '니 부모의 얼굴이 보고싶다' , '이웃사촌' 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봉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오달수는 파문 이후 외부 활동을 극도로 줄이고 사실상 칩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달수 측은 당장의 복귀 여부에는 선을 그었지만 영화계에서는 사실상 그의 활동 재개에 의견을 모으고 있는 분위기다. 오달수가 각종 파문을 이겨내고 무사히 복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티파니 영, 첫 미국 EP 앨범 발매하며 북미 투어 진행

팝 아티스트이자 패션 아이콘 티파니 영(Tiffany Young, 사진)이 자신의 첫 미국 EP 앨범을 지난 22일 출시했다.

소속사 관계자는 "티파니 영의 이번 앨범은 지난 1월 선공개 했던 '본 어게인(Born Again)' 을 포함해 총 5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성장, 자신을 찾는 테마, 또는 자신의 힘을 소유하는 테마와 연결된다." 고 설명했다.

티파니 영은 오는 3월 14일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되는 '2019 아이하트라디오 뮤직 어워드(iHeartRadio Music Awards)' 에서 미국의 쟁쟁한 여성 아티스트들과 나란히 베스트 솔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되어 이목이 집중된 바 있다.

티파니 영은 미국 첫 EP 앨범 발매와 함께 3월부터 토론토를 시작으로 뉴욕, 시카고, 미니애폴리스, 시애틀, 밴쿠버, 샌프란시스코, LA를 잇는 '립스 온 립스' 북미 미니 쇼케이스 투어도 진행하며 본격적으로 글로벌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1252호 숫자퍼즐 정답

9	1	3	7	5	8	4	2	6
8	7	6	4	9	2	5	1	3
4	2	5	1	3	6	7	8	9
1	3	9	8	4	7	2	6	5
6	4	2	9	1	5	3	7	8
5	8	7	2	6	3	9	4	1
7	9	8	3	2	1	6	5	4
2	5	4	6	8	9	1	3	7
3	6	1	5	7	4	8	9	2

종교 무관
주7일 예약상담

원인을 이해하면 억울하지 않다

☎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오랜 기간 결혼생활을 하다보면 부부간에도 유정(有情)한 세월 그리고 무정(無情)한 세월이 오고가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다. 얼마 전에 어느 중년 부인과 상담을 하면서 필자가 건넨 이야기는 "타고난 팔자가 그래도 재물도 있고 먹을 복도 있는 팔자가 되지만 약 4년 전부터 바뀐 운(運)의 흐름이 아내로서 받아야 되는 남편의 덕이 박하다고 느끼는 흐름이 됩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 부인이 하는 말이 "맞습니다. 예전에는 남편하고 그래도 잘 살았는데 4년 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혼도 고려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한다. 이어서 필자가 건넨 이야기는 "현재 운의 흐름을 비유해서 설명하면 숲속에 핀 예쁜 꽃을 부인이라고 한다면 나비는 남편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숲속에 겨울이 찾아 왔으니 나비가 꽃을 보러오기 힘든 법이지요. 그러니 나비를 탓할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겨울인데도 나비가 멀리 떠나가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는 지금의 남편이 아니라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 하더라도 현재 운세(運勢)에 따라 본인이 느끼는 감정은 같았을 것입니다."라고 말을 해주니까 그 부인이 하는 말이 "남편은 맨날 놀러 다니기만 하고 가정에 관심을 두지 않으니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말을 한다. 이어서 필자가 건넨 이야기는 "한 해 동안에도 춘하추동(春夏秋冬)으로 춥고 더운 계절이 오고가는데 평생을 같이 살아야 하는 배우자와의 관계도 춥고 더운 계절이 오고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연의 이치를 깨닫고 이해한다면 남편에 대해 부인이 억울하다고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말을 해주니까 그 부인이 이해했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필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어떤 일이든지 원인을 알면 억울하지 않은 법니다.

★ 사주명리 · 풍수 · 수맥감정 전문 ★

평생사주 총운	직업, 사업, 재물	궁합, 애정
상호, 이름 작명	풍수지리 출장 감정	수맥 탐사 전문

예약 필수 714.534.4645 9618 Garden Grove Blvd. #108, Garden Grove, CA 92844

정교한 사주해석 전문
청해 역학 학술원